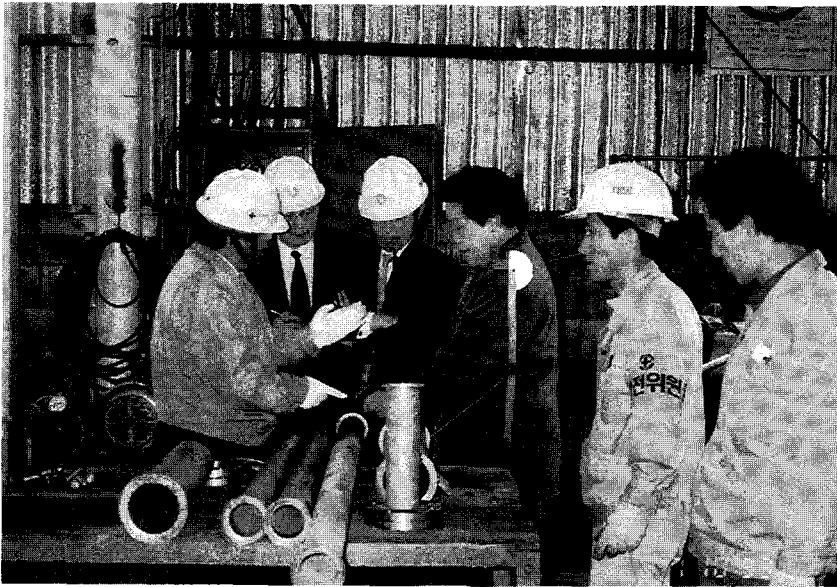


플랜지 그루우빙 공법등 일본에 수출키로

대일공무(주)



일본 竹中工務店 일행이 대일공무(주) 안성공장에서 플랜지 그루우빙 공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대일공무(주) (대표 이동락)가 국내 최초로 배관의 엘보 및 티어음 공법인 그루우빙 공법 및 밴드공법을 일본에 수출키로 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 일본 유수의 설비시공업체인 竹中工務店 大阪本店 大熨元徳 설비부장 및 高川墳司 설비과장, 자켓도(주) 石山和彦 사장, 한국의 오피상인 세아상사 강제엽 등의 일행이 대일공무(주) 본사와 서울시 도림동 오피스빌딩 신축공사 현장, 경기도 안성소재의 대일공무(주) 안성공장을 살펴본 후 일본측의 제의를 대일공무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따라 대일공무는 몰라 그루우빙 및 플랜지 그루우빙 공법의 수출용 견본을 빠른 시일내에 제작, 일본에 보낸 후 본격적인 수출이 이루어지면 일본 설비배관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여진다.

竹中工務店 일행은 이동락 대일공무(주) 사장이 입상배관의 레이저 유니트 공법과 플랜지 그루우빙 공법 등에 관해 설명하자 매우 관심을 보였으며 『이 공법들을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지, 수출에 앞서 기본소재인 동관 및 철판등이 JIS 규격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동락 사장은 『이들 제품은 이미 JIS 규격을 획득한 제품이므로 일본으로 수출이 충분히 가능하며 오히려 일본에서 구입하는 가격의 3분의 1 가량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림동 오피스빌딩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한 竹中工務店 일행은 『덕트의 공장제작화 시공 아주 좋다』고 말하고 『현장 시공관리가 단계적으로 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이 매우 깨끗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밖에 대일공무 안성공장에서는 공장의 시설 및 규모 생산자재의 종류, 품질, 생산자동화 및 컴퓨터 시스템, 공장제작화 현장조립 시공방식 등을 竹中工務店 일행에게 설명하자 일행은 덕트의 자동화 제작에 관심을 보이고 일본의 가격보다 1/3가량 낮은 덕트의 자동화 제품의 수입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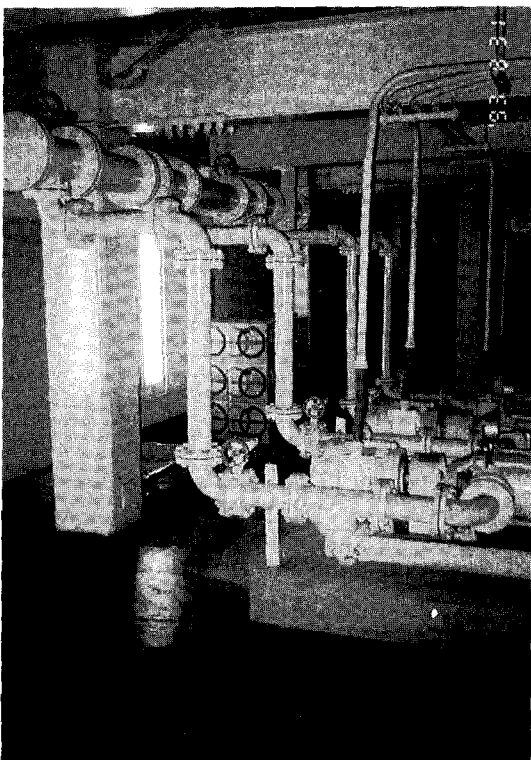
또한 플랜지 그루우빙 공법 외에 난방배관 내의 에어를 자동으로 제거해 주는 스트레이나도 주문, 수출키로 했다.

竹中工務店은 총 건설공사의 연간 수주액이 약 2조엔인데 이중 설비분야는 약 20%에 해당하는 2천억~1억8천억엔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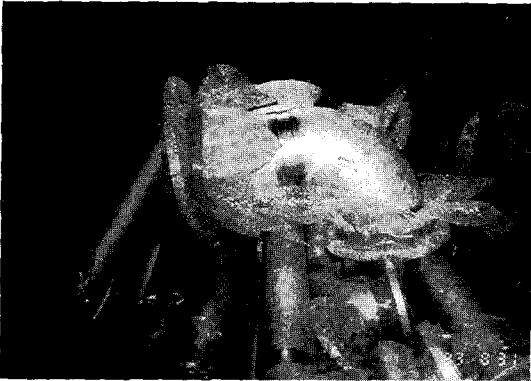
대일공무(주)가 이들 공법 및 자재를 일본에 수출하게 되면 국제 개방화대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설비시공업체의 일본 진출 가능성도 타진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 일본 설비시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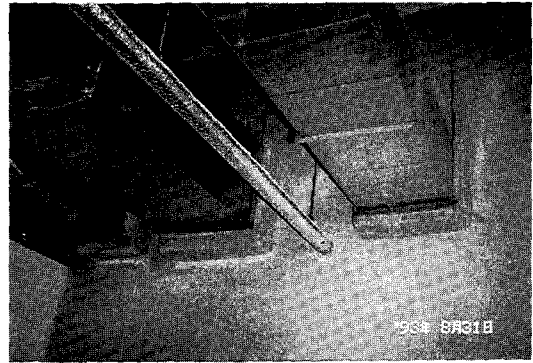
펌프실 배관(전체 플랜지 연결배관)



신공법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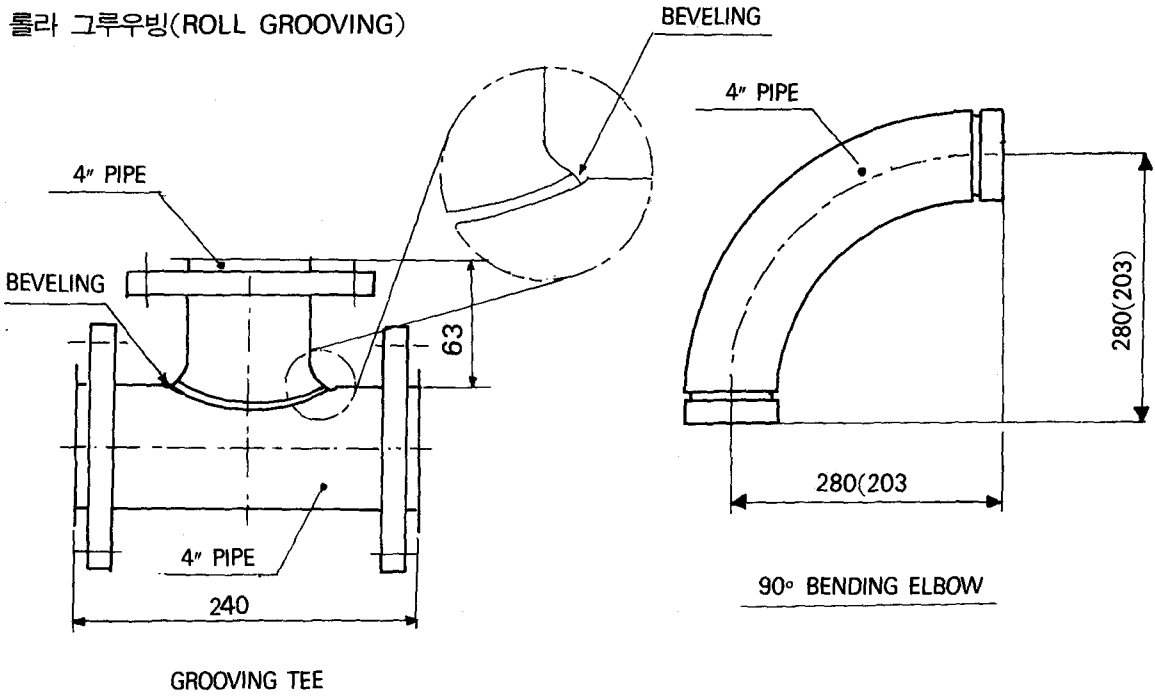
스텐레스관 공장제제품(관말 부분은 비닐로 밀봉하여 현장에 이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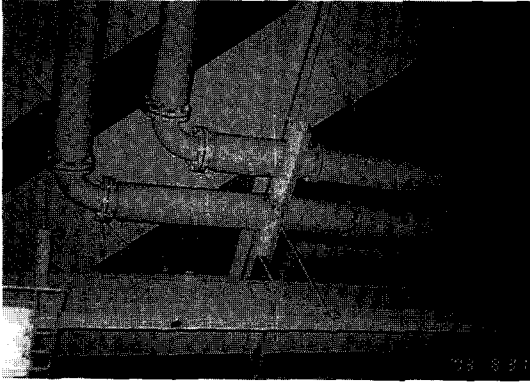


벽관통마감(소음방지 및 화재시 인화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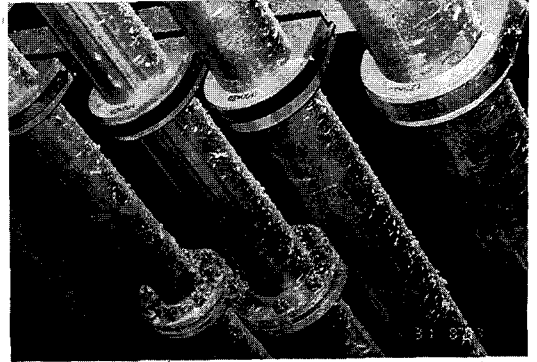
■ 수출용 건본 제작도면

롤라 그루우빙(ROLL GROOVING)





관보온(일반관은 플랜지 연결부분은 보온을 하지 않고 냉수관만 겉로 방지를 위해 전체 보온한다.)



황주관 고정

플랜지 그루우빙(FLANGE GROOVING)

